

# 2017년 미국 Shasta College Summer Program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황세*	학번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캘리포니아 Redding
파견대학	Shasta College	기간	2017. 6. 25. ~ 7. 16

##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대학은 캘리포니아 레딩의 샤스타 컬리지로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였다. 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편하고 주변이 숲이라 저녁엔 사슴이나 개구리, 청설모 등 동물이 많다. 대학교 건물은 대부분 1,2층 건물로 낮았고 비슷하게 생겨 강의실을 찾기 힘들다. 학교 안은 냉방시설이 잘 되어있어 시원했고 어떨 때는 출기도 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수업 내용은 word press 를 이용한 웹디자인, 웹 페이지 구축이였다. word press를 이용해 backhand(html같은 코딩)이 아닌 단순한 fronthand 를 다루는 수업이였다.</p> <p>수업 방법은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강사분의 재량으로 쉬는시간이 주어지며 각자의 컴퓨터를 이용해 2인 1조 팀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과제는 따로 없었다. 별도의 교제가 없어 영어를 잘 못알아 듣는 순간 수업을 따라잡기 힘들 수 있다.</p> <p>중간중간 쉬는시간이 있어 그리 딱딱한 수업은 아니었으며, 각자의 페이지로 수업을 진행해 웹디자인을 배우는 재미가 있었다.</p>
필드트립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점심을 먹고 난 후 1시부터 필드트립이 진행되며 대부분 레딩안에서의 필드 트립으로 외부 기업대표 강의를 듣는 것, 카약, 근처 관광지 탐방, 다른 샤스타 캠퍼스의 프로그램 참여 등이 있었다. 이동은 샤스타 컬리지 버스로 했으며 준비물은 크게 필요 없었다.</p>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온도는 높지만 습하지 않아서 땀이 잘 나지 않았고, 저녁엔 춥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기숙사 출입 통제가 자유로우나 밖에서 들어올 때는 키가 꼭 필요하다 밤 늦게 기숙사를 나가서 들어올 때 키가 없고 친구들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도움을 요청할 때가 별로 없으니 조심해야 한다.
숙소	학교기숙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 홈스테이 ( <input type="checkbox"/> ) 외부 숙소( <input type="checkbox"/> ) 기타( <input type="checkbox"/> )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기숙사는 2인 1실로 침대가 책상위에 높게 위치해 올라오거나 내려올 때 힘들다. 분위기는 자유롭다. 유의사항은 밖에서 방으로 들어올때 꼭 키가 필요하니 항상 키를 들고다녀야 한다.
식사	학교식당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외부식당 ( <input type="checkbox"/> ) 기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평일엔 세끼가 모두 학교에서 제공된다. 아침엔 대체로 샐러드와 요거트, 간단한 샌드위치나 빵, 점심엔 햄버거나 빵, 저녁엔 고기나 쌀밥, 햄버거 등이 나온다. 음식이 대체로 짜다. 주말엔 식사가 제공되지 않아 밖에서 해결하거나 기숙사 내에 부엌에서 요리를 해 먹어야 한다. 나는 대체로 만들어 먹거나 냉동 식품을 먹었는데 외국인 친구와 근처 마트에서 장을 봐서 요리를 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시내 교통은 이용해 본 적 없고 외국인 친구들의 차를 이용했다.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지출 금액과 현지에서 추가 지출한 총 지출내역을 써 주세요.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보험료	31,300	출국 전 사전 납부
주말 식비	150,000	
쇼핑	80,000	
간식비	40,000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주세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힘들 수 있으니 한국 간단 조리식품을 챙기면 좋을 것 같다. 저녁엔 추우니 겉옷을 챙길 것. 영어 회화에 능숙하지 않다면 미리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수업을 외국인 친구들과 같이 듣고 기숙사 생활도 함께 하며 외국인 친구들과 많이 친해 질 수 있어 좋았다. 특히 외국인 친구들의 집에 초대되어 미국의 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다. 수업 보다는 필드트립이나 방과후 외국인 친구들과의 많은 경험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지낼 수 있어서 영어회화 능력에 도움이 되었고 재미있는 3주를 보낼 수 있었다.

짜고 느끼한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 먹는 것에 힘들었고 밀가루를 너무 많이 먹어 피부 문제가 생겼다. 한국음식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후회를 했다.

온도가 너무 높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습도가 낮아 후덥지근한 우리나라보다 시원하고 실내에는 냉방이 너무 잘되어 춥기까지 했다. 하지만 외출 시 모자와 선글라스 선크림은 꼭 챙겨 다녔다. 생각보다 학교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서 조금 심심하긴 했지만 3주 동안 외국인 친구들과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다. 무엇보다 이 외국인 친구들이 다음학기에 우리 학교에 와서 한국에서도 만날 수 있어 기대된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학교 식당 식사



외국인 친구 집 초대



global day 행사 참여



학교 내 수영장



학교 기숙사 내 commons room



4th of July 행사 참여